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처용이 '처용가'를 지은 까닭은?

# 신라 서민층 타락 깨우치려는 경고

#### 1. 처용은 누구인가

『삼국유사』「기이」편은 국가의 흥망에 관한 신이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편에 실려 있는 '처용랑 망해사' 조목에 대해서는 무속학적 관점, 불교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과 방법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결론 역시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의 방향은 대부분 처용랑과 처용가에 대한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연은 어떠한 의도에서 처용설화를 수록했으며 그것을 왜 「기이」편에 실었을까? 「기이」1이 건국 시조 기사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이」2는 나라의 몰락과정을 다수 기록하고 있다. 신라 중고기(中古期)까지 불교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였던 신라는 하고기(下古期)가 시작되는 선덕왕과 원성왕 때부터 기강이 해이해지고 방곡의 조짐이 잇달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것은 동해용의 변덕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풀어야 할 것이옵니다." 이에 관원에게 명하여 근처에 용을 위한 절을 짓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걷히고 안개는 흩어져버렸다.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開雲浦)라고 이름을 지었다. 동해용이 기뻐서 곧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임금의 탄 수레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탄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의 아들 하나가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왕의 정치를 도와 주었는데 그 이름을 처용(處容)이라고 했다.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고 그를 머물게 하고자 다시 급간(綴干)이라는 관직도 주었다. 그의 처는 매우 아름다워 여신(女神)이 그를 흡모하여 사람으로 변한 뒤 밤이면 그의 집으로 가서 몰래 그녀와 잤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신라 말기에 재위한 헌강왕(875-886)은 총명하고 후덕한 왕이었지만 귀족세력을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신라의 귀족들은 점차 경제권과 사병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왕권에 맞섰다. 재위 5년에는 일길찬 신홍(信弘)이 배반하다가 사형을 받았다. 『삼국사기』, 왕은 멈추지 않는 귀족들의 향락에 불안을 느껴 개운포로 순행하자 때마침 동해용이 나라의 위태로움을 경고하였다. 때문에 처용랑 망해사 조목은 이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 귀족들의 향락에 영향을 받아 점차 일반 서민 계층까지 윤리적으로 타락해 갔다. 그러자 신라의 호국신들이 나타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었다. 하지만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상서로움으로 이해하여 더욱 유희에 빠져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신라의 국제교류

"서라벌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것인데/ 둘은 누구인가/ 본래 내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양주동 역) 이에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다. 이때 여신이 형체를 드러내어

#### 처용이란 사람 가능성 높아

#### 신라 말 국제교류 반증

처용의 앞에 풀어앉아 말하였다. "내가 공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은 노하지 않으니 감격스럽고 장하게 여겨집니다. 맹세코 이제부터는 공의 모습이 그려진 것만 보아도 그 문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辟邪] 경사스러운 것을 맞아들이게[進慶] 되었다. 왕이 돌아와서는 곧 영축산 동쪽 기슭에 좋은 자리를 잡아 절을 세우고 망해사(望海寺)라고 불렀다. 더러는 신방사(新房寺)라고 했는데 이는 용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여기서 동해용은 누구이며 처용은 누구인가?

신라는 일찍부터 국제교류가 활발했던 나라였다. 경주 서라벌의 관문인 울산 개운포는 외국인들이 드나들었던 국제항구였다. 서기 645년에 서역의 강대한 제국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가 무너졌다. 사산왕조의 태자 일행은 왕조의 복원을 염원하며 당나라로 망명하였다. 당 황실은 새롭게 들어선 왕조와 교류를 개시하면서 사산조의 태자 일행을 홍콩 아래인 해남도(海南道)로 이주시켰다. 이후 이들 태자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신라로 들어와 신라 공주와



울산 대표축제 처용문화제에서 처용무의 시연 장면.

결혼해 살다가 돌아가 나라를 되찾았다고 적고 있다. 이란의 가장 주요한 구전 서사시인 『쿠쉬나메』(Kush-name)는 총 1만 129 쿠프레(對句)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신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은 1만 219절 중에서 2011-5925절이다. 이 서사시가 다루고 있는 시대와 지역 및 분량은 매우 광범위하여 일부 연구자는 16세기(1517년?) 이래 청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신라 김(金)씨와 금(金, 後金, 淸)나라 및 이란 페르시아와의 연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기에서는 7세기 이후부터 10세기 전반에 걸치는 신라 하대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가 머문 곳을 '신라' (silla) 또는 '바 실라' (ba silla)로 적고 있으며 '바' (ba)는 '아름다운'(good)을 뜻하는 평용사이다. '쿠쉬'는 중국왕의 이름이며 '나메'는 책[書]이란 뜻이다. 이 서사시에서 "신라 법에 이방인(아비틴)에게 딸자식을 내주지 않아요. 내가 딸을 내준다면 귀족들이 우습게 불칭합니다"라고 한 기록처럼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은 끝내 처용에게 딸(프라랑)을 주자 이를 반대했던 세력이 처

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헌강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려 했으나 황소(黃巢)의 난으로 보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국 사신을 맞기도 하는 등 국제교류가 원활했으므로 아랍인과 교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3. '처용가'의 해석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더니 남산의 신(神)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 주위 신하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왕의 눈에만 보였다. 어떤 사람(신)이 왕 앞에서 춤을 추자 왕 자신도 신이 주는 모양대로 따라 춤을 추었다. 신의 이름을 '상심' (祥審)이라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이 이 춤을 전해오면서 '어무상심' (御舞祥心)이라고도 하고 '어무산신' (御舞山神)이라고도 한다. 혹은 말하기를 원래 신이 나와서 춤을 출 때 그 모습을 자세히 본떠[審象] 조각하는 공인에게 그대로 새기도록 하여 후대에 보였으므로 '상심' (象審)이라고 했다. 더러는 상염무(審舞)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그 형상에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왕이 또 금강령(金剛嶺)에 행차했을 때 북악신이 춤을 추어 보였는데 춤이름이 '옥도검' (玉刀鎗)이었다. 동례전(同禮殿)에서 연회를 할 때에 지신이 나와

#### 처용설화는 당시 신라의 타락 상징

#### 그럼에도 중앙귀족 환락이어나

서 춤을 추었으므로 춤 이름을 '지백급간' (地伯級干)이라고 했다.

처용 설화를 기술한 일연은 다시 『어법집』을 인용하여 "이 당시 산신이 춤을 추면서 부른 '지리다도파도파' (智理多都波都波)라는 말들은 대개 '지해[智]로 나라를 다스리는[理] 사람들이 미리 알고 많이[多] 도망[都-]逃하여 도읍[都]이 장차 파괴[波-]破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라 한다" 하였다. 그런 뒤에 "이에 지신과 산신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춤을 추어 경고를 하였는데도 나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 하여 유희에만 너무 빠져 있었다. 그래서 끝내 나라가 망했던 것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왕에게만 보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나라의 호국신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것인데/ 둘은 누구인가/ 본래 내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처용가'에 대한 해석에 큰 쟁점은 없다. 다만 처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구구하다. 양주동은 『고거연구』에서 '처용'은 원뜻은 '한

자의가 아닌 '제용' 혹은 '치용'이란 말에서 그 원뜻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용구는 '數' (정)에서 '용'이 되었다고 하고, 엄원대는 "용이 머문 곳의 뜻인 '처용' (處容)에서 '처용' (處容)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김영수는 '터' [處]+[아] [下]+[바] [容]에서 '하' (下)가 생략되어 '처용'이 되었다고 하였고, 김동욱은 "용신제의 사제자인 무당 즉 자차충(次次雄) 곧 자충(德充)에서 처용이 나왔다고 했다. 이용범은 "이제술에 능한 이슬람 상인"으로 보았다. 실크로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수일은 '처용'이 서역인, 즉 '아라비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전승되어 오는 처용탈의 모습이 아랍인의 형상에 가깝고, 헌강왕 당시 개운포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던 국제 무역항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것은 『쿠쉬나메』에서 중국으로 숨어든 이란 유민들이 신라의 항구를 통해 이주했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어 『삼국유사』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춤들도 서역의 페르시아 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조목에서 일연은 신라의 국망에 대한 수호신들의 경고를 상서로움으로 알고 유희를 멈추지 않은 신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주에 정착하여 왕을 보좌하는 처용이 유락(遊樂)에 빠져 밤새도록 놀라다니자 성격으로 문란한 그의 처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여신의 교접을 통해 서민계층의 윤리적 타락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둘은 누구 것인가"는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주가적(呪歌의) 연표이며,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하면서 춤을 추고 물러나는 것은 분노와 허탈을 극복하여 조용히 체념하는 초월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처용의 관대한 대응에 여신이 개오(改悟)하여 무격(巫覡) 사회에서 처용은 존송의 대상이 되었고 민간에 널리 퍼져 문신으로 추앙되었다. 그 결과 사기를 물리치고 경사로 나아가는[辟邪難慶]의 무속과 처용무의 민간적 풍속을 낳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귀족들은 소비적 기풍과 퇴폐적 환락 생활을 통해 그 불안을 잊고 태평을 가장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신라는 망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양주동, 『고거연구』(일조각, 1975).
- 김원진, 『항해해독본연 구』(서울대출판부, 1983).
- 이도훈,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2005; 2007).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차장 정홍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 전화 (053)428-1133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식, 쇄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범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부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강 일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중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병숙)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범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g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